

지역사회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연구

오미현*

*공주대학교 리빙디자인센터 연구교수

Cognitive Learning Space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Enhancing the Social Inclusion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ihyun Oh*

*Research Professor, Living Design Cent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와 돌봄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물리적 안전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령자의 인지특성과 사회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요소를 지각, 주의집중, 기억, 판단, 언어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간 요소를 안전성, 방향성, 시인성, 접근성, 사회성, 활동성, 감각성, 지속성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인지학습공간의 계획 방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의 인지능력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디지털 환경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참여형 공간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속적인 인지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 요소와 인지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안정적 생활환경과 공동체 중심 공간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억 회상과 감각 자극 중심 환경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참여와 활동성 중심 공간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인지학습공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 공간환경과 활동 참여형 공간 구성은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을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간계획 방향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지역사회 고령자, 인지능력, 사회적 포용, 노인복지시설, 인지학습공간, 고령친화환경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planning directions for cognitive learning space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aim is to enhance the social inclusion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a super-aged society. As both aging-related cognitive decline and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continue to increas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creasingly need to evolve from simple care-oriented institutions into inclusive environments that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lationship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physical safety and universal design, while relatively few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add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cognitive characteristics, social experiences, and spatial environmen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classified research subjects into residents of elderly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and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Elements of older adults' cognitive functioning were categorized into perception, attention, memory, judgment, and language, while corresponding spatial elements were classified as safety, orientation, visibility, accessibility, sociality, activity, sensory stimulation, and continuity. In addition, planning directions for cognitive learning spaces were analyzed based on human-centered design, culture-oriented design, digital-driven design, and eco-based design elements. The results showed the cognitive functioning of older adults to be closely related not only to physical environments but also to social relationship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xperiences with digit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community spaces and activity-oriented spaces contributed positively to reducing social isolation and maintaining continuous cognitive activities. Furthermore, the required spatial and cognitive elemen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of elderly welfare facility. Elderly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emphasized stable living environments and community-

* 공주대학교 리빙디자인센터, 제1저자(mihyu_oh@kongju.ac.kr)

oriented spaces;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emphasized memory recall and sensory stimulation environments; and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emphasized social participation and activity-oriented spaces. Therefore, elderly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not merely as functional spaces but as cognitive learning spaces that support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integration for older adults. Community-based spatial environments and activity-oriented spatial configurations are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alleviating social isolation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a super-aged society. This study meaningfully reinterprets elderly welfare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clusion and systematizes spatial planning directions that support cognitive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Key words: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cognitive function, social inclusi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cognitive learning space, age-friendly environment

I.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약 4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문화·복지 전반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이다. 고령자는 노화와 함께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언어 이해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와 우울감, 사회적 관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박경숙, 2000).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와 생활환경의 질은 인지기능 유지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윤경 외, 2017). 최근에는 독거노인 증가와 지역사회 관계 약화로 인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환경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HO, 2007).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단순한 보호와 돌봄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속적인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포용적 공간환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연구는 주로 물리적 안전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령자의 인지특성과 사회적 경험, 공간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권영걸, 2001).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인지를 유도하는 환경적 인터페이스이며, 사회적 관계와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Lynch, 1960).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공간환경은 인지기능 유지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lph, 1976).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생활지원 공간이 아니라,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학습공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 기반의 공간디자인이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송주형 외, 2024). 이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인간중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디지털 접근성, 감각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포용적 공간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학습공간은 고령자의 지각, 주의집중, 기억, 판단, 언어 등 인지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학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공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학습공간은 고령자의 인지활동, 정서적 안정,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계획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서 고려해야 할 인지학습공간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인지학습공간의 계획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을 사회적 포용과 인지활동 지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시설 유형별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령화와 사회적 포용

고령화는 단순한 연령 증가 현상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김미혜, 정순돌, 2015).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 과정에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언어 이해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와 우울감, 사회적 관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박경숙, 2000).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활동 감소는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Rowe & Kahn, 1997).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약화 현상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정서적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김아린, 2020). 따라서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한 돌봄 중심 접근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포용 환경 구축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WHO, 2007).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고령자의 경우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Silver, 1994). 최근에는 AIP(Aging in Place)와 AIC(Aging in Community) 개념을 중심으로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Wiles et al., 2012).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적 생활환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이윤경, 2009).

2. 지역사회 고령자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고령자의 생활지원과 돌봄,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령친화 환경으로, 최근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복지환경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이윤경 외, 2017).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보호와 의료 중심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권중돈, 2016). 노인복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된다(노인복지법, 2024. 2. 13. 일부개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의료·재활 중심 환경으로 구성된다(김미혜, 정순돌, 2015).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교육, 취미, 문화활동 및 사회적 교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참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조추용, 2003). 특히 최근의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생활지원 기능을 넘어,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공간, 디지털 교육 환경, 자연친화 공간 등은 고령자의 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정,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WHO, 2007).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환경은 고령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적 고립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iles et al., 2012).

3. 인지능력과 공간디자인 요소의 관계

공간은 인간의 행동과 인지를 유도하는 환경적 인터페이스이며, 사용자의 지각·인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체

계로 작용한다(Lynch, 1960). 인간은 공간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므로, 공간디자인은 단순한 형태 구성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경험을 지원하는 환경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Relph, 1976).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과 감각 기능의 저하로 인해 공간 인지와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복잡한 공간환경은 이동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Lawton, 1986). 반면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명확한 공간 구분, 자연환경과 연계된 감각 자극 환경은 공간 인지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Ulrich, 1984). 또한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은 고령자의 기억 회상과 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와 정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Oldenburg, 1999). 이는 공간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Gehl, 2011).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요소를 지각, 주의집중, 기억, 판단, 언어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공간 요소를 안전성, 방향성, 시인성, 접근성, 사회성, 활동성, 감각성, 지속성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권영걸, 2001).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공간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환경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WHO, 2007).

〈표 1〉 인지능력 요소와 공간디자인 요소의 관계

인지 능력 요소	공간디자인 요소	공간 특성	사회적 포용 요소	기대 효과
지각	안전성, 시인성	명확한 공간 구분, 안전한 보행환경, 색채 및 조명 계획	안정적 이동 지원	공간 인지 향상 및 불안감 감소
주의 집중	방향성, 접근성	직관적 동선체계, 단순한 공간 구조	독립적 활동 지원	이동 편의성 및 공간 이해 향상
기억	지속성, 감각성	친숙한 재료와 생활환경, 회상 자극 공간	정서적 안정 및 생활 연속성 유지	기억 회상 및 심리적 안정
판단	시인성, 안전성	정보 전달 강화, 명확한 안내체계	정보 접근성 향상	공간 판단 능력 및 안전성 강화
언어·사회성	사회성, 활동성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공간, 교류 공간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완화 및 활동 참여 확대

이와 같이 고령자의 인지능력 요소는 노인복지시설의 물리적 공간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각과 판단은 안전한 이동환경, 명확한 공간 구분, 시인성 높은 안내체계와 관계되며, 주의집중은 단순한 동선체계와 직관적인 공간 구조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 또한 기억은 친숙한 재료, 회상 자극 요소, 반복적 공간 경험과 관련되며, 언어와 사회성은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공간, 교류 공간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지 특성을 공간디자인 요소와 연결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국내외 고령친화시설 및 인지학습공간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고령친화시설 및 인지학습공간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분석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인지능력 요소, 공간디자인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

행하였으며, 분석 틀은 인지능력 요소(지각, 주의집중, 기억, 판단, 언어), 공간 요소(안전성, 방향성, 시인성, 접근성, 사회성, 활동성, 감각성, 지속성), 공간디자인 요소(인간중심, 문화지향, 디지털주도, 생태기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사례분석기준

분석항목	세부내용
시설유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인지능력 요소	지각, 주의집중, 기억, 판단, 언어
공간 요소	안전성, 방향성, 시인성, 접근성, 사회성, 활동성, 감각성, 지속성
공간디자인 요소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분석내용	공간구성, 동선체계, 감각자극 요소, 사회적 교류 공간, 디지털 환경 적용 여부

1) 한국 서울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서울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본 시설은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용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공간환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개방형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경은 개방형 진입 공간과 명확한 접근 동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의 접근성과 방향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의 공간 지각과 판단을 지원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도 공간은 직선형 동선과 안전 손잡이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이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단순한 공간 구조와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표 3〉 서울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구분	공간 특성	관련 인지 요소	적용 디자인 요소	분석 내용
외부 전경	 개방형 진입 공간 및 접근 동선 구성	지각, 판단	인간중심디자인	명확한 진입 동선과 개방형 외부환경을 통해 접근성과 방향성을 강화함
복도 공간	 직선형 복도와 안전 손잡이 설치	지각, 방향성	인간중심디자인	단순한 동선체계와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제공함
프로그램 공간	 개방형 커뮤니티 및 활동 공간 구성	사회성, 활동성	문화지향디자인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계획됨
출입 및 공용 공간	 공용 휴게 및 연결 공간 구성	기억, 감각성	생태기반디자인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공간 인지 향상에 기여함

이러한 공간 구성은 고령자의 방향 인지와 불안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 공간은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재할 및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조를 통해 사회성과 활동성을 강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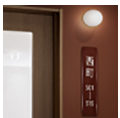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문화지향디자인 요소와 연계되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출입 및 공용공간은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용 휴게공간과 연결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개방형 공간 구성과 자연 요소의 활용은 감각 자극과 공간 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기반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는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고령자의 안전성, 사회성, 감각성 향상을 지원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료 중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과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고려한 공간 구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된다.

2) 일본 시라히게

일본 시라히게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고령자 생활시설로,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이 계획된 사례이다. 본 시설은 지역성과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개방형 공간과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구성을 통해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이용자의 지속적인 활동 참여와 공간 경험을 유도하고 있었다. 외부 전경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개방형 외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변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형 건축 형태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성과 친숙성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문화지향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방형 외부공간과 접근 동선은 고령자의 공간 지각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복도 및 이동공간은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색채 및 재료를 활용한 공간 구분을 통해 방향 인지를 지원하고 있었다.

〈표 4〉 시라히게

구분	공간 특성	관련 인지 요소	적용 디자인 요소	분석 내용
외부 전경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개방형 외부 공간 구성	지각, 판단	문화지향디자인	지역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외부공간 계획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친숙성을 유도함
복도 공간	 직관적 동선체계와 색채 기반 방향 유도 계획	방향성, 주의집중	인간중심디자인	명확한 공간 구분과 시인성 확보를 통해 공간 인지와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킴
프로 그램 공간	 소규모 교류 중심의 개방형 활동 공간 구성	사회성, 활동성	문화지향디자인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유도함
출입 및 공용 공간	 자연채광과 휴게공간 중심의 생활환경 구성	감각성, 기억	생태기반디자인	자연 요소와 안정적 공간 분위기를 통해 정서 안정과 기억 회상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함

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간 구조는 이용자의 이동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인간중심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으며, 고령자의 주의집중과 방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공간은 소규모 교류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용자 간의 자연

스러운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형 휴게공간과 공동활동 공간을 연계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지향디자인 요소와 관련되며, 고령자의 사회성과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공간 요소로 분석되었다. 공용 및 생활공간은 자연채광과 휴게공간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목재 재료와 따뜻한 색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속적인 공간 경험과 감각 자극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는 생태기반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으며, 심리적 안정과 기억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일본 시라하게는 문화지향디자인과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성과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구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네덜란드 호헤베이크(Hogeweyk)는 치매 고령자를 위한 마을형 생활공동체 개념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 중심의 폐쇄적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지역 커뮤니티 환경을 재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시설은 고령자의 자율성과 생활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커뮤니티 공간과 보행환경, 생활형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인지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 경험을 통해 고령자의 기억 회상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Hogeweyk)는 치매 고령자를 위한 마을형 생활공동체 개념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 중심의 폐쇄적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지역 커뮤니티 환경을 재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시설은 고령자의 자율성과 생활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커뮤니티 공간과 보행환경, 생활형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인지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 경험을 통해 고령자의 기억 회상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외부 커뮤니티 공간은 개방형 광장과 휴게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일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카페와 공용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외부 공간과 연계되어 사회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지향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으며, 고령자의 사회성과 활동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 5〉 호헤베이크

구분	공간 특성	관련 인지 요소	적용 디자인 요소	분석 내용
외부 전경	 개방형 광장과 휴게공간 중심의 커뮤니티 환경 구성	사회성, 활동성	문화지향디자인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계획됨
복도 공간	 자연채광과 식재 환경을 활용한 휴식 공간 구성	감각성, 정서 안정	생태기반디자인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감각 자극 효과를 제공함
프로 그램 공간	 안전한 보행 동선과 개방형 이동환경 계획	지각, 방향성	인간중심디자인	명확한 이동체계와 열린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간 인지와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킴
출입 및 공용 공간	 생활공간과 외부 커뮤니티 공간의 연계 구성	기억, 지속성	생태기반디자인	일상생활과 연계된 외부활동 환경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 경험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함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휴게공간은 자연채광과 식재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감각 자극을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정원과 휴게공간이 생활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용자의 외부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자연 요소를 활용한 공간 구성은 정서 안정과 감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태기반디자인 요소와 관련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과 기억 회상에 효과적인 환경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산책공간은 안전한 보행 동선과 개방형 이동체계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단순하고 명확한 이동 동선과 열린 공간 구성은 이용자의 공간 인지와 방향성을 향상시키고, 이동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외부 산책 공간과 생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이동 경험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중심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사례로 분석되었다. 주거 연계 외부공간은 생활공간과 외부 커뮤니티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며, 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 분위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기억 회상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는 생태기반디자인 요소와 관련되며, 고령자의 지속적 공간 경험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호헤베이크는 문화지향디자인, 인간중심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성, 활동성, 감각성 향상을 지원하는 생활형 공간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의 의료 중심 요양시설과 달리 일상생활 중심의 마을형 공간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자율성과 정서적 안정,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학습공간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2. 사례결과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를 위한 공간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보호 환경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노인복지시설은 안전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능적 공간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 유형과 사용자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지 요소와 공간환경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사례인 서울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안전성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디자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었다.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시인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은 고령자의 공간 인지와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생활공간과 프로그램 공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공용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이용자 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연채광과 개방형 공간 구성은 감각 자극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며, 시설 내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의료·돌봄 중심 환경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포용적 공간환경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시라하계 사례는 지역사회와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향디자인 요소가 중심으로 나타났다. 지역성과 친숙한 생활환경을 반영한 공간 구성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억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계획은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와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하고 명확한 동선체계와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은 고령자의 방향 인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생활공간과 지역사회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환경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의 지속적 사회참여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사례는 마을형 생활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인간중심디자인과 생태기반디자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외부 커뮤니티 공간과 산책 공간, 생활 연계형 외부환경은 이용자의 자율적 이동과 지

속적인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자연환경과 연계된 공간 구성은 감각 자극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기억 회상과 정서적 안정, 자율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 광장, 공동 휴게공간 등은 이용자 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교류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 완화와 공동체 기반 생활환경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자를 위한 인지학습공간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참여형 공간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속적인 인지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연환경과 연계된 감각 자극 환경은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시인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은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과 공간 인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표 6〉 공간디자인 요소별 인지학습 공간 계획 방향

공간디자인 요소	주요 계획 요소	적용 공간	사회통합적 의미
인간중심디자인	안전한 동선, 접근성, 시인성 강화	복도, 생활공간, 이동공간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 지원
문화지향디자인	지역문화 반영, 커뮤니티 공간 구성	휴게공간, 공동활동 공간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연계
디지털주도디자인	스마트 안내 시스템, 디지털 학습 환경	교육공간, 정보공간	정보 접근성 및 사회참여 확대
생태기반디자인	자연채광, 실내정원, 산책 공간	휴게공간, 야외공간	정서 안정 및 감각 자극 지원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유형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간디자인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반 환경 구축은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지학습공간 요소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노인복지시설의 공간 특성과 고령자의 인지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설 유형별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공간디자인 전문가 3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2인, 노년학 및 심리 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간 요소와 인지 요소를 중심으로 질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공간 특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 요소, 공간디자인 요소의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7〉 전문가 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인터뷰 대상	공간디자인 전문가,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노년학 전문가
인터뷰 인원	총 7인
인터뷰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4월
인터뷰 방식	반구조화 인터뷰
주요 질문	인지능력 향상 공간 요소, 시설 유형별 공간 특성, 디자인 적용 방향
분석 방법	공통 의견 및 주요 키워드 도출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전문가 인터뷰 개요

구분	주요 의견
공간디자인 전문가 A	“고령자는 복잡한 공간에서 방향 인지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시인성이 중요하다.”
공간디자인 전문가 B	“색채와 조명은 공간 인지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공간별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A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반복적 공간 경험과 익숙한 환경 구성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노년학 전문가 A	“고령자의 인지기능은 사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심리 분야 전문가	“자연 요소와 감각 자극 환경은 정서 안정과 기억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간디자인 전문가 C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인터뷰 결과,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 요소와 인지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안전성과 방향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억 회상과 감각 자극 요소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성과 활동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공간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전문가들은 인간중심디자인 요소와 함께 디지털 환경 및 자연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채광, 녹지공간, 감각 자극 요소는 심리적 안정과 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은 물리적 안전성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 감각 자극, 기억 회상, 디지털 정보 지원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최종디자인 방향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사례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고령자를 위한 인지학습공간은 단순한 생활 지원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환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간디자인 요소는 고령자의 지각, 판단, 기억, 감각, 사회성 등의 인지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포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인간중심디자인 요소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직관적인 공간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사례분석 결과, 단순한 동선체계와 시인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은 고령자의 공간 인지와 독립적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손잡이와 명확한 공간 구분,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 계획은 이동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이용자가 쉽게 공간을 인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직관적 환경을 기반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문화지향디자인 요소는 지역성과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문화와 생활 경험을 반영한 공간환경은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억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활동 공간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구성은 이용

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개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중심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주도 디자인 요소는 정보 접근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스마트 환경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최근 고령자의 디지털 환경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디지털 기반 학습과 정보 제공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 결과,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스마트 정보환경은 고령자의 방향 인지와 정보 이해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학습 공간은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태 기반디자인 요소는 자연환경과 감각적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자연채광과 실내정원, 산책 공간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한 환경은 감각 자극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활동과 휴식,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자연환경과 연계된 공간은 고령자의 기억 회상과 지속적인 공간 경험을 유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자연 요소와 연계된 감각 자극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9〉 최종디자인방향

공간디자인 요소	주요 공간 특성	적용 사례 특징	관련 인지 요소	분석 결과
인간중심 디자인	안전한 동선, 접근성 강화, 직관적 공간 구성, 시인성 확보	색채를 활용한 동선 구분, 휴게공간 배치, 단순한 공간체계 구성	지각, 판단, 주의집중	안전성과 방향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 활동 지원
문화지향 디자인	지역문화 반영, 기억 회상 요소, 커뮤니티 공간 구성	친숙한 재료와 생활환경 적용,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기억, 언어, 사회성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효과적
디지털주도 디자인	스마트 안내 시스템, 디지털 정보 제공, 인터랙티브 환경	스마트 모니터링,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정보 안내 시스템 적용	판단, 주의집중, 방향성	정보 인식과 공간 이해를 지원하며 활동 참여 확대
생태기반 디자인	자연채광, 실내정원, 산책로, 감각 자극 환경	식물환경 조성, 자연 요소 연계 휴게공간 구성	감각성, 기억, 정서 안정	감각 자극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복합적 공간요소	사회적 교류 공간, 활동 프로그램 연계 공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참여형 활동 공간 구성	사회성, 활동성, 지속성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 활동 참여를 유도

본 연구의 최종 디자인 방향은 노인복지시설을 단순한 보호 중심 시설이 아니라,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포용적 인지학습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 공간환경과 활동 참여형 공간 구성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고령친화 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인지학습공간 계획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간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기능과 이용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환경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한 보호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구축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인지학습공간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공동체 기반 생활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지학습공간은 안전성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와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될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에서는 인간중심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동선체계와 시인성을 강화한 생활환경 구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복도와 공용공간은 명확한 공간 구분과 단순한 이동체계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공간 인지와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휴게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은 생활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문화지향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지역문화와 생활 경험을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공동체 활동과 소규모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연채광과 실내 녹지공간 등 생태기반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심리적 안정과 감각 자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 지속적인 돌봄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인지학습공간은 안전성과 기억 회상, 감각 자극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중요하다. 공간계획에서는 인간중심디자인 요소를 기반으로 안전한 이동환경과 시인성을 강화한 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직선형 동선과 반복적 공간 구조를 적용하여 이동 혼란을 최소화하고, 색채와 상징 요소를 활용한 공간 구분을 통해 방향 인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구성하여 안정적 생활환경과 친숙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지향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과거 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 이미지를 조성하고, 사진과 소품, 생활형 가구 등을 활용한 회상 자극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억 회상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실내정원과 산책 공간, 자연채광 환경 등을 조성함으로써 감각 자극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단순한 의료·돌봄 중심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환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용 휴게공간과 공동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환경 계획이 필요하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교육, 취미, 문화활동 및 사회적 교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활동성 향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다. 따라서 인지학습공간은 사회성과 활동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학습 프로그램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공간계획에서는 문화지향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다목적 공간과 공동활동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강의와 취미활동,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을 구성하고,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역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주도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스마트 학습 공간과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경

험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학습 환경은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디지털 정보환경과 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참여형 공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생태 기반디자인 요소로는 자연채광과 야외 휴게공간, 산책 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감각 자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내와 실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형 공간환경은 활동 참여와 사회적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인지학습공간은 시설의 기능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 구축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 공간환경과 활동 참여형 공간 구성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속적인 인지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공간디자인 요소 적용 방향

시설 유형	주요 인지 요소	적용 공간디자인 요소	공간 계획 방향
노인주거복지시설	지각·판단·기억	인간중심디자인·문화지향디자인	안정적 생활환경과 공동체 중심 공간 구성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억·감각성·방향성	인간중심디자인·생태기반디자인	회상 자극 및 심리 안정 중심 공간 계획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성·활동성·언어	문화지향디자인·디지털주도디자인	사회참여와 학습활동 중심 공간 구성

V. 결론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인지학습공간 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령화와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기반 노인복지시설, 인지능력과 공간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사례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공간디자인 요소와 인지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의 인지능력은 단순한 신체적 노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 참여, 지역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활동 감소는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커뮤니티 활동과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인지활동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와 돌봄 중심 시설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환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외 노인복지시설은 인간중심디자인, 문화지향디자인, 디지털주도디자인,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디자인 요소는 안전성과 방향성,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과 공간 인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문화지향디자인 요소는 지역성과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주도디자인 요소는 정보 접근성과 학습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생태기반디자인 요소는 자연환경과 감각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분석 결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안정적 생활환경과 공동체 기반 생활 지원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억 회상과 감각 자극, 심리적 안정 중심의 환경 계획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참여와 활동성 향상을 지원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참여형 공간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인지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기능적 공간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인지학습공간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

회와 연계된 커뮤니티 기반 공간환경 구축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복지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을 사회적 포용과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인지학습공간의 계획 방향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고령자의 인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간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고령친화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복지환경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가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행동 데이터와 정량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공간 이용 행동과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간환경과 인지활동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과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을 연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 국제.
-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미혜, 정순돌(2015).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학지사.
- 김아린(2020).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343-351.
- 노인복지법. 법률 제20439호. 2024. 2. 13. 일부개정.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74.
- 송주형, 임은택, 허지수, 손동화(2024). 국내 고령친화 스마트홈의 사회 이슈 및 연구 동향 분석과 전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5(6), 1-10.
-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추용(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34.
- 통계청(2024).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Gehl, J.(2011). *Life Between Building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Lawton, M. P.(1986). *Environment and Aging*. Albany, NY: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 Lynch, K.(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 Oldenburg, R.(1999). *The Great Good Place*. New York: Marlowe & Company.
-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Ulrich, R. S.(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647), 420-421.
-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 Allen, R.(2012).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52(3), 357-366.